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이번 주 토요일 (8/8) 청소담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간식은 로템 목장(정진숙 권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4. 8월 '하늘문의 만나' 책자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매일 목상집으로도 활용하거나, 전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르항)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교회출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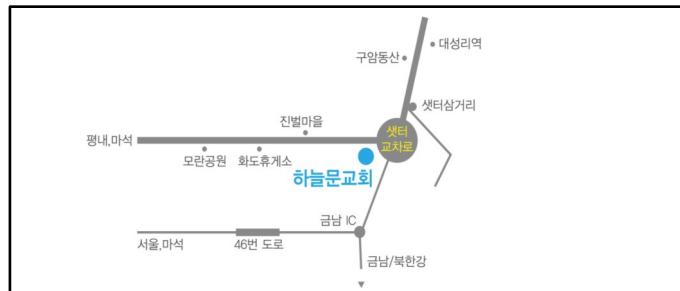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31번(시 68:1-6)	다같이
*경배찬송 80장(통 10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435장(통 492장)	다같이
대표기도	인도자(1부) 신태식 장로(2부)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삼상 17:38-4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다윗과 골리앗’	김묘상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356장(통 396장)	다같이
*축도	김묘상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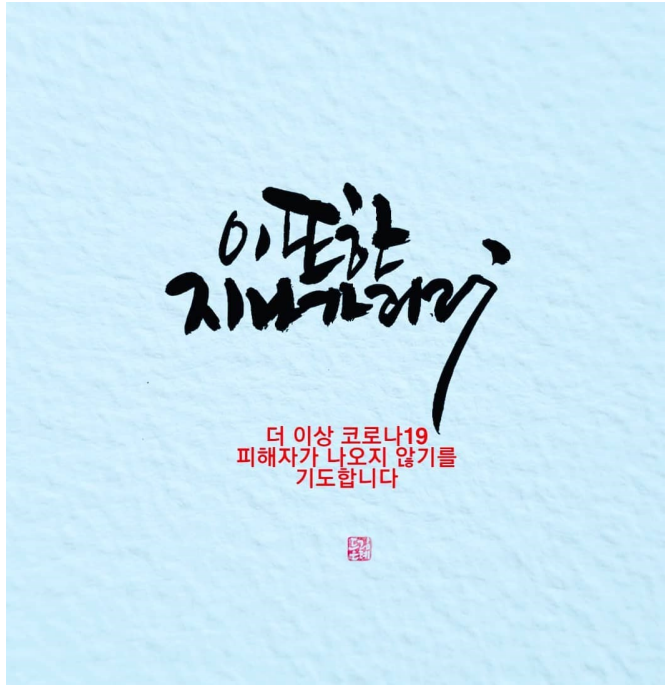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1-1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5:12-21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12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연약함에 건네는 위로

새롭게 꾸며진 교회 초입 화단에는 종묘상에서 구입해 심은 상추며 깻잎 같은 여러 채소가 심겨져 있다. 처음 심을 때만 해도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잎이었는데 이젠 제법 먹음직스런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간 불볕더위도, 모진 비바람도 잘 견뎌냈다. 나중 먹거리로 기대하며 바라다보는 시간이 제법 길어지고 있다. 그러다 온실에서 짝을 틔운 모종이 처음으로 비바람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본다. 모종이 비바람을 털어내며 ‘앗, 이게 뭐야?’ 낭창하게 몸을 흔들어대는 것만 같다. 그렇게 모종은 조석(朝夕)으로 온전한 바람을 맞고, 한낮에는 불볕더위도 감내하면서. 또 가끔은 고개 숙인 채 비를 견디는 날도 있겠지. 그렇게 모종은 온실이 아닌, 지상에서 자기 그늘을 한 뼘쯤 키워갈 것이다.

새롭게 일군 텃밭의 토양에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모종은 활력 있는 생명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모종이 옷자라도 옮겨 심은 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자란 모종은 딱딱 위 줄기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는다. 그러면 딱딱 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온다고 농사 짓는 이들이 귀땀해준다. 그런 걸 보면 모종을 텃밭에 옮겨다 심고서 안착하는 과정이 신앙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상상해보라. 머릿속 온실에서만 자란 신앙이 손끝을 통해 세상으로 옮겨지는 구도를.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신앙, 여전히 구습을 쫓는 신앙이라면, 이는 신앙도 아닐 뿐더러 나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온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 써야 한다. 다들 그렇듯,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온실을 가꾸는 데만 열심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모종을 삶에 옮겨 놓는 일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수고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내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게 된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스밀 때, 비로소 생명의 꽃은 피어날 것이고, 나아가 그 삶이 줄기를 뻗어 다양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즘 우리는 온실 안에서만 머무는 것 같다. 연약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새삼 불볕더위도 비바람도 견디며 쭉쭉 커가는 여린 채소들의 생명력을 생각해 본다.

Written by 허영진